

애착유형과 친밀감의 관계에서 온라인 공간의 반응성 경험의 매개효과*

이 서 현 우 성 범 권 정 혜 양 은 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최근의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공간의 발전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많은 시간을 온라인 공간에서 보내고 있으며, 온라인 대인관계의 영역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애착성향에 따라 온라인 관계에서 얻는 타인의 반응성의 변화와 친밀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종단연구로 설계되었다. 연구대상은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서울 경기지역의 청소년 6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에는 SNS사용양상과 온, 오프라인 반응성, 애착회피, 애착불안 및 친밀감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반응성 경험의 시간적 변화를 살펴본 결과 선형변화모형이 나타나 시간에 따라 긍정적인 반응성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애착이 반응성 경험을 매개로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애착회피는 초기의 긍정적 반응성 경험과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고, 애착불안은 초기의 긍정적 반응성 경험은 증가시키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은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의 의의와 제한점,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SNS, 반응성, 친밀감, 회피애착, 불안애착, 잠재성장모형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B00240).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양은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136-701
Tel : 02-3290-2685, E-mail : yangee@korea.ac.kr

인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친밀감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이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개인은 우울, 불안 등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이귀숙, 정연희, 2005; Buhrmester, 1990; Prinstein, Borelli, Cheah, 2005). 특히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발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중요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는 자아효능감(Buhrmester, 1990)과 자아정체감(Grotevant & Cooper, 1985), 사회성(Buhrmester, 1990) 학교성적 혹은 학교생활 적응(이규미, 2005; 김상미 등, 2011; Berndt & Keefe, 1995), 등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삶의 핵심적인 요소들의 적응적인 발달을 예측해준다. 이처럼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친밀감이 형성되고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발달을 위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특히 최근 개인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청소년의 대인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공간이 전통적인 공간에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등의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Subrahmanyam, Reis, Waechter et al., 2008)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주목하는 것은 앞으로 청소년의 대인관계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이 대인관계에 있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활발히 발전되어 왔다. 특히 새로운 문화를 빠르게 흡수하고 더 지대한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사교

의 장이 그들의 대인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몰두해 친구 관계에 소홀하게 될 것이라는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축적되는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을 기존의 대인관계를 확장하고 보완하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한다(Amichai-Hamburger, Wainapel, & Fox, 2002; McKenna, Green & Gleason, 2002; Valkenburg & Peter, 2007). 또한, 단순한 보완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 공간이 단순히 오프라인 공간의 대용물이 아니라, 오프라인 대인관계에서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온라인 공간이 이 어려움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학자들은 이것을 사회보상 가설(Social compensation hypothesis)라고 명명하였는데, 이 가설에 따르면 온라인 공간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면대면 상호작용을 방해했던 내적 수줍음이나 불안, 억제(inhibition)를 완화함으로써 보다 편안한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이것이 전통적인 대인관계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Mckenna et al., 2002). 경험적 연구 결과 역시 이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Amichai-Hamburger 등(2002)의 연구에서는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 온라인으로 의사소통 할 때 좀 더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드러낸다고 보고했으며 Valkenburg와 Peter(2007)의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이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온라인으로 하는 의사소통을 면대면 의사소통보다 더 선호하며, 대화의 폭과 깊이를 발전시키는 데도 더 효과적이라고 지각하였다.

사회보상 가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면대면 대인관계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개인에게 온라

인이 대안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애착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 역시 온라인에서 보다 긍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애착은 대인관계에서 친밀감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은 어린 시절 주요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 및 세상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게 된다(Bowlby, 1976). 이러한 내적 작동 모델은 전 생애에 걸쳐 지속하여 안정적인 애착 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인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Brennan, Clark와 Shaver(1998)은 성인애착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두 차원으로 구분했는데, 애착불안은 유기와 거절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나타내는 성향이며 애착회피는 친밀감을 꺼리거나 불편해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성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면대면 상호작용 상황을 배경으로 축적된 지금까지의 경험적 연구들은 애착불안이나 애착회피 성향이 안정애착 성향에 비해 낮은 관계 만족과 낮은 친밀감을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한다(e.g. Collins & Read, 1990; Feeney & Noller, 1990; Keelan, Dion, & Dion, 1998.; Stackert & Bursik, 2003). 애착이 대인관계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애착이 개인의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탐구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회피와 불안, 두 종류의 불안정 애착이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감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탐구하고 더 나아가 불안정 애착성향이 온라인공간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지 검증하고자 한다.

사회보상 가설에서 주장하는바와 같이 불안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오프라인 공간

에서보다 온라인 공간에서 더 효과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면 이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관계대상의 반응을 보다 긍정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일 수 있다. Reis와 Shaver(1988)는 친밀감 형성에 있어서 상호작용 과정에서 경험되는 상대방의 반응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는 친밀감 형성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제안하였다. 이들은 상대방의 반응성에 대한 지각이 이해, 승인, 돌봄의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이를 통해 친밀감을 증진하게 된다고 보았다. 불안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보다 긍정적인 상대방의 반응을 경험한다면 이는 이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피드백을 유발하기 때문이거나 온라인 공간에서 주어지는 피드백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일 수 있다. 온라인 공간은 상대방의 피드백에 대한 시각적 단서가 제한될 뿐 아니라 피드백이 지연되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이서현, 권정혜, 양은주, 2013; Ye, 2007), 온라인 공간에서의 상호작용 행동이나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지각 과정은 오프라인과는 구분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먼저 애착과 온라인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온라인 공간에서 친밀한 대상과 상호작용을 할 때 애착불안이나 애착회피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안정애착 성향의 사람들과 유사한 수준의 상호작용 폭과 깊이를 나타내었다(Ye, 2007). 애착과 온라인 관계행동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불안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안정애착이나 회피애착을 가진 사람들보다 온라인 공간에서 더 높은 수준의 자기개방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Buote, Wood, & Pratt, 2009). 이는 온라인 공간의 경우 상대방의 표정과 같은 시각적 정보가 제한되고 상

호작용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불안정 애착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온라인 공간에서는 안정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온라인 공간의 특성으로 인하여 불안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방의 반응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할 가능성도 있다. 오프라인 공간의 상호작용의 경우 애착불안이 높은 개인은 애착대상의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인 시각적 단서들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이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Lopez & Brennan, 2000; Mikulincer et al., 2003). 그러나 온라인 공간과 같이 시각적 단서가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상대의 반응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부정적 왜곡 경향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불안정 애착성향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 주어지는 관계대상의 반응성에 대한 해석 경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나, Zhang과 Hazan(2002)의 연구에 의하면 상대에 대한 단서가 부족한 경우 애착불안의 경우 더 쉽게 타인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할 때, 관계대상에 대한 시각적 단서가 제한되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불안정 애착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온라인에서는 보다 긍정적인 상호작용 반응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효과가 종단적으로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불안

정 애착 성향의 사람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보이는 긍정적인 상호작용 행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 높은 수준의 자기개방을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일 수 있으며(Buote, Wood, & Pratt, 2009), 관계 맥락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부적절하게 지각될 수 있다. 아울러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지각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특히 애착불안의 경우 거절과 유기 신호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 상대에 대한 판단이 쉽게 변할 수 있다 (Zhang & Hazan, 2002).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자면 사회보상 가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온라인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안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온라인 공간에서 보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이러한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초기의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상호작용 대상의 반응성에 대한 경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매개로 친밀감을 예측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대상 반응성 경험의 시간적 변화를 잠재성장모형으로 설정하여 이들의 변화 모형을 종단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애착회피는 기본적인 친밀감 형성 욕구가 낮으므로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상대의 반응을 부정적으로 경험하게 하며 이것이 친밀감에 부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된다. 반면 애착불안의 경우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거절과 유기에 대한 불안이 높으므로 초기 반응성은 긍정적으로 경험하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 보상 가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불안정 애착 성향의 사람들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관계에서의 긍정적 관계 경험이 형성되고 지속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불안정 애착, 온라인 공간에서의 반응성에 대한 경험, 친밀감은 서로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온라인 공간에서의 반응성에 대한 경험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가?

연구문제 3.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온라인 공간의 반응성 경험의 변화를 매개로 하여 친밀감을 예측하는가?

연구 참여자 및 절차

청소년들의 온라인 대인관계에 대하여 중단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 경기지역의 중학교 1학년(14세)과 고등학교 1학년생(17세)을 대상으로 1차 설문을 실시하고, 추후 한 학기 단위로 2차와 3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와 동의서는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와 동의서는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거나 연구참여자가 반송용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방식으로 수령하였다. 학기 단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6개월 간격으로 1, 2, 3차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반응성 경험은 1, 2, 3차에 걸쳐 측정하였고 애착 유형은 1차에 친밀감을 3차에 측정하였다. 총 900부의 설문지를 수합하였으나 미응답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1, 2, 3차 설문 과정에서 중도 탈락한 경우를 제하고 총 650부의 설문

연구방법

표 1. SNS 사용 현황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가끔 이용한다	적당히 이용한다	자주 이용한다	매우 자주 이용한다	무응답
커뮤니티 (다음카페, 네이버카페 등)	빈도	75	278	139	87	68	9
	%	11.4	42.4	21.2	13.3	10.4	1.4
미니홈피사용빈도 (싸이월드, 세이클럽 등)	빈도	170	178	94	93	106	15
	%	25.9	27.1	14.3	14.2	16.2	2.3
개방형SNS사용빈도 (다음블로그, 네이버블로그 등)	빈도	219	203	102	95	19	18
	%	33.4	30.9	15.5	14.5	2.9	2.7
마이크로블로그사용빈도 (트위터, 미투데이 등)	빈도	479	117	28	15	6	11
	%	73.0	17.8	4.3	2.3	.9	1.7
프로필기반서비스사용빈도 (페이스북, 링크나우 등)	빈도	520	69	26	25	4	12
	%	79.3	10.5	4.0	3.8	.6	1.8
메신저사용빈도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빈도	71	90	73	199	210	13
	%	10.8	13.7	11.1	30.3	32.0	2.0

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최종분석에 포함된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15.86세, 표준편차는 0.56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323명(49.9%), 여성이 324명(50.1), 성별을 밝히지 않은 응답자가 3명이었다. 연구참여자는 모두 한가지 이상의 SNS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NS 종류별 이용빈도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이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과 같은 메신저의 사용빈도가 ‘자주 이용한다’ 199명(30.3%), ‘매우 자주 이용한다’ 210명(32.0%)로 나타나 가장 활발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싸이월드나 세이클럽과 같은 미니홈피의 사용빈도가 두 번째로 자주 사용하는 SNS매체로 나타났고, 마이크로블로그(트위터, 미투데이)나 프로필 기반 서비스(페이스북, 링크나우)의 이용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도구

대상 반응성 경험

Reis와 Shaver(1988)가 대인관계에서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요소로서 자기개방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성에 대한 경험 차원을 세 가지 차원-이해, 승인, 돌봄-으로 제시한 것에 착안하여 Laurenceau과 그 동료들(2005)이 구성한 문항을 온라인 상황에서 측정하였다. 상대방 반응에 대한 경험을 나타내는 3문항은 ‘상대의 피드백을 받고, 나를 이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대의 피드백을 받고, 나를 인정해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대의 피드백을 받고, 나를 신경 쓰고 돌봐준다는 생각이 들었다’로 이루어져 있다. Laurenceau과 그 동료들(2005)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애착 유형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Brennan과 그 동료들(2000)이 개발한 친밀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ECR-R)을 김성현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박지선(2008)이 청소년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7점 리커트 척도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문항(문항 예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편이다.’)은 애착 회피를 측정하고, 18문항(문항 예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하다.’)은 애착 불안을 측정한다. 불안 차원과 회피 차원 모두에서 점수가 낮은 개인은 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rennan과 그 동료들(2000)의 연구에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각 .87, .95로 나타났으며, 정진미와 유현실(2013)의 연구에서는 .90, .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91, .83로 나타났다.

친밀감

친밀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Furman과 Buhrmester(1985)가 개발한 척도를 한중혜(199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0개의 소항목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의, 대립, 조력, 만족, 친밀, 보살피기, 애정, 인정, 결속력’의 9개 소항목을 사용하였다. 각 소항목은 각각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들은 자신과 아주 가까운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의 질을 경험하는 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문항 예 ‘상대방과의 관계를 얼마나 만족스러워 합니까?’). 원 문항에

서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4점 리커트 척도로(1점=전혀 그렇지 않다; 4점=매우 그렇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Furman과 Buhrmester(1985)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0로 나타났으며, 한종혜(1996)의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다.

분석 절차

애착유형과 친밀감의 관계에 있어서 온라인 공간의 반응성 경험의 변화가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잠재성장 모형은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반복측정된 변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다룬 구조방정식모형으로서, 각 요인의 초기치와 변화량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초기치와 변화량을 잠재변수로 추정한 잠재성장 모형을 이용하면 변화에서 개인차와 유의미한 정도, 개인차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그리고 한 변수에서 다른 변수로의 변화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Duncan, 2013).

모형의 분석은 우선 반응성 경험의 변화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반응성 경험의 1~3차변화를 각각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모형으로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반응성 경험의 변화모형을 추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변인간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으로 가설적 모형을 검증하였다. 잠재성장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적합도 지수 중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설명력 뿐만 아니라 간명성을 고려할 수 있는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홍세희, 2000). TLI와 CFI의 경우 .95 값 이상일 때, RMSEA의 경우는 .05 값 이하일 때를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결 과

상관분석

잠재성장 모형 검증에 앞서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들의 상관 및 기술통계량을 산출하고 표 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반응성 경험의 1~3차 시점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13 < r < .30$)이 나타났다. 또한 애착 회피는 1, 2, 3차 시점의 반응성 경험과 모두 부적 상관($-.13 < r < -.19$)이 나타났고, 애착 불안은 3차 시점의 반응성 경험의 관계만 부적상관($r = -.17, p < .01$)으로 나타났다. 3차 시점의 친밀감은 애착불안($r = -.23, p < .01$)과 애착회피($r = -.32, p < .01$)와 모두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반응성 경험과($.13 < r < .35$)는 전반적으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반응성 경험에 대한 변화모형 검증

반응성 경험이 시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을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모형으로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반응성 경험의 변화모형을 비교하기 위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한 결과 무변화 모형의 적합도($\chi^2 = 18.98, df = 4, TLI = .327, CFI = .551, RMSEA = .076$)은 좋지 않은 적합도로 나타났으나, 선형변화모형($\chi^2 = .312, df = 1, TLI = 1.018, CFI = 1.000, RMSEA = .000$)에서는 좋은 적합도

표 2. 반응성 경험과 애착 및 친밀감의 상관 및 기술통계량

	1	2	3	4	5	6
1. 애착회피	1					
2. 애착불안	.58**	1				
3. 반응성 경험 1차	-.15**	-0.01	1			
4. 반응성 경험 2차	-.13**	-0.08	.20**	1		
5. 반응성 경험 3차	-.19**	-.17**	.13**	.30**	1	
6. 친밀감	-.32**	-.23**	.14*	.13*	.35**	1
평균	61.60	60.63	7.38	7.73	7.90	24.67
표준편차	13.16	17.39	2.42	2.57	2.44	3.80
왜도	.08	.09	-.12	-.28	-.10	-.14
첨도	-.09	-.35	-.47	-.55	-.46	1.84

* $p < .05$. ** $p < .01$. *** $p < .001$.

표 3. 반응성 경험에 대한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의 비교

		χ^2	df	TLI	CFI	RMSEA	초기치		변화율	
							평균	분산	평균	분산
반응성 경험	무변화모형	18.98	4	.327	.551	.076	7.60***	1.15***		
	선형변화모형	.312	1	1.018	1.000	.000	7.13***	3.22	.27***	.76*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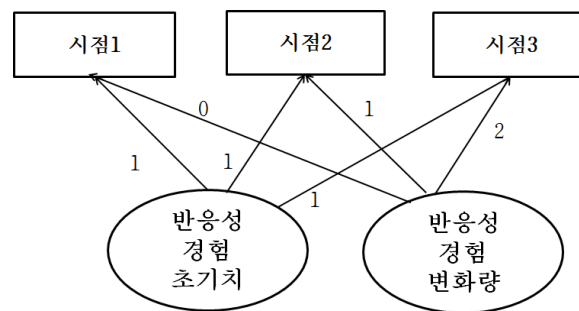


그림 1. 반응성 경험의 선형변화모형

가 나타나 반응성 경험이 선형변화함을 확인하였다(표 3, 그림 1).

애착과 반응성 경험의 변화와 친밀감의 종단적 관계

애착회피와 불안이 반응성 경험을 매개로 청소년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설정한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표 4와 같이 $\chi^2 = 1.872$, $df=4$, $TLI=1.028$, $CFI=1.000$, $RMSEA = .000$ 로 모두 좋은 적합도를 보여 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모형에서 추정된 경로계수들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각각의 경로들을 살펴보면 애착회피는 반응성 경험의 초기치($\beta=-.32$, $p<.01$)와 3차시점의 친밀감($\beta=-.18$, $p<.01$)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반응성 경험의 초기값과 3차시점의 친밀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애착불

안은 반응성 경험의 초기값과는 정적관계($\beta=.25$, $p<.01$)를 나타냈으나 반응성 경험의 변화량과는 부적관계($\beta=-.27$, $p<.01$)를 나타내어, 애착불안이 초기의 반응성 경험은 증가시키지만 반응성의 변화는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반응성 경험의 초기치($\beta=.65$, $p<.001$)와 변화량($\beta=.47$, $p<.001$) 모두 3차시점의 친밀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서 나타난 간접효과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표 5) 애착회피가 반응성 경험의 초기치를 거쳐서 3차시점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반응성 경험 변화량을 거쳐서 3차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애착불안이 반응성 경험의 초기치를 매개로 3차시점의 친밀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반응성 경험 변화량을 매개로 친밀감에 이르는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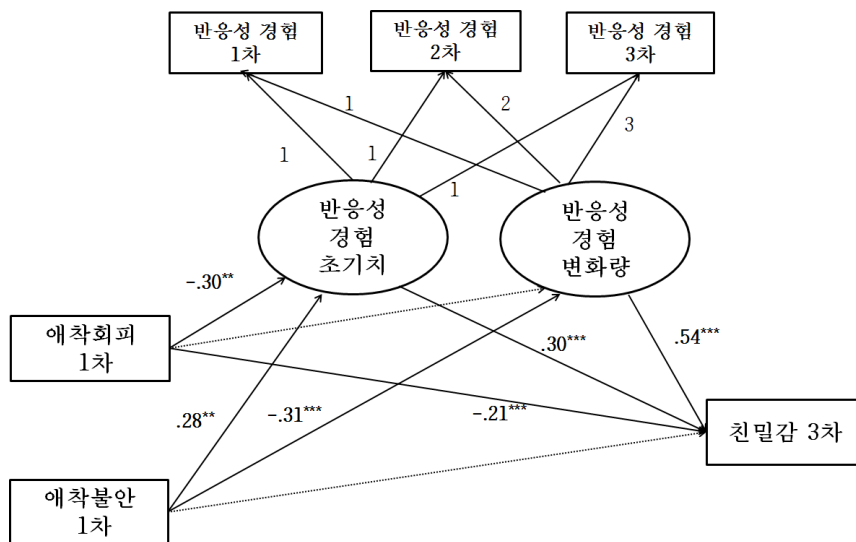


그림 2. 애착과 경험된 반응성의 변화, 친밀감의 관계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B	β	S.E	t
애착회피 1차	→	반응성 경험 초기값	-.05	-.32	.01	-3.26**
애착회피 1차	→	반응성 경험 변화량	.01	.12	.01	1.26
애착불안 1차	→	반응성 경험 초기값	.03	.25	.01	2.60**
애착불안 1차	→	반응성 경험 변화량	-.02	-.27	.01	-2.70**
반응성 경험 변화량	→	친밀감 3차	2.55	.65	.62	4.11***
반응성 경험 초기값	→	친밀감 3차	.94	.47	.24	3.89***
애착회피 1차	→	친밀감 3차	-.05	-.18	.02	-3.07**
애착불안 1차	→	친밀감 3차	-.01	-.03	.01	-.57

** $p < .01$, *** $p < .001$

표 5. Sobel test를 이용한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간접효과	Sobel test Z
애착회피1차	→	반응성 경험 초기값	→	친밀감3차	-.15	-3.08**
애착회피1차	→	반응성 경험 변화량	→	친밀감3차	.08	.97
애착불안1차	→	반응성 경험 초기값	→	친밀감3차	.12	2.38**
애착불안1차	→	반응성 경험 변화량	→	친밀감3차	-.18	-2.87**

* $p < .05$. ** $p < .01$. *** $p < .0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애착성향이 반응성 경험을 매개하여 친밀감이 형성되는 과정을 종단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사회보상 가설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온라인 공간이 불안과 회피 애착을 가진 청소년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대안적 맥락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애착불안 성향이 높을수록 초반에는 상대의 반응을 이해 받고 인정받는다고 해석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대 반응을 보다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회피 성향은 높을수록 초기 상대

의 반응을 부정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였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반응성 경험의 변화와는 관계가 없었다. 아울러 애착불안과 친밀감간 직접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과 달리 애착회피는 친밀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사회보상 가설의 주장과 달리 불안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 온라인 공간의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의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초기에 상대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으로 매개된 의사소통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시각적 단서가 제한되기 때문에

애착불안 성향이 높은 개인도 보다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Buote, Wood, & Pratt, 2009) 관계 대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Zhang & Hazan, 2002)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애착불안 성향이 높은 개인에게 있어 초기에 형성된 상대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유지하는 것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는 애착불안의 특성과 함께 이해할 수 있는데, 애착불안이 높은 개인은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특히 거절이나 유기를 나타낼 수 있는 단서에 과도하게 집착한다. 상대방부터 과도하게 확신을 추구하고자 하고 이러한 시도가 실패하면서 초기 친밀감에 대한 높은 기대는 실망과 좌절로 변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거나 상대의 반응을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애착불안 성향이 초기 긍정적인 반응성 경험과 관련되지만, 시간적 흐름에 따른 긍정적 반응성 경험의 증가 정도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는 애착불안 성향의 영향이 관계 초기와 그 이후에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애착불안의 이러한 특성은 애착불안에 대한 기존 횡단연구들의 모순적 결과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횡단적 자료에 기초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애착불안 성향은 상대의 피드백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 모두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안하얀, 서영석, 2010; Brennan & Bosson, 1998; Carnelly et al., 2007). 이러한 결과는 애착불안의 양가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으나, 왜 이러한 양가성이 나타나는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

과에 기초할 때, 이러한 양가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애착불안이 높은 청소년들이 상대와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는 상대에 대해 이들을 호의적이고 친근하게 지각하지만 관계가 지속되면서 상대방부터 거절 받는 느낌이 들고 이해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서 상대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반응성 경험을 매개로 한 애착불안의 효과는 초기에는 친밀감 형성에 기여하지만, 이러한 초기 긍정적 효과가 지속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애착회피의 경우 관계에 직접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상대방의 반응도 부정적으로 경험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시간의 흐름과 관계 없이 일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회피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연구들과 동일한 선상에 있으며 애착회피 성향이 상대의 반응을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하게 지각하는 것을 예측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선상에 있다(안하얀, 서영석, 2010; Carnelly et al., 2007). 종단적으로 봤을 때도 애착회피 성향이 있는 청소년들은 변함 없이 상대의 반응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높은 애착회피 성향을 가진 이들이 친밀감의 가치를 부인하고 타인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잘 하지 않고 그 평가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Zhang & Hazan, 2002). 애착회피 성향이 높은 개인은 상대방의 반응을 부적절하게 지각하고 이에 따라 방어적으로 행동하며 그 결과 상대방부터 더 부정적인 반응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으로 인해 애착회피가 가지고 있

는 왜곡된 인지적 도식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적절한 개입이 제공되지 않는 한 애착회피 성향이 있는 청소년들이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소외감, 부적절감, 낮은 관계만족도가 지속할 수 있다.

요약하면, 온라인 공간에서도 애착회피 성향 뿐만 아니라 애착불안 성향도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부정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그 결과 친밀감 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보상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들(이서현 등, 2013; Amichai-Hamburger, Wainapel, & Fox, 2002; Valkenburg & Peter, 2007)과 달리, 온라인 공간은 불안정 애착 성향이 높은 개인의 대인관계 문제를 보상하는 공간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앞선 연구들이 횡단자료에 기초하고 있으며, 관계 경험보다는 관계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공간의 특징이 단기적으로는 애착불안과 같은 일부 불안정 애착성향을 가진 이들의 대인관계 불안을 낮추고 긍정적 대상 경험을 촉진하여 관계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효과가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온라인 공간이 대인관계 문제를 보완해 주는 맥락으로 기능하기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주관적 경험을 측정하였으며 실제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는 평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을 부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실제 상대방의 반응이 부정적인 것인지 개인의 인지적 편향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혹은 둘 다인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실제 반응과 반응성 경험을 구

분하여 연구한다면 인지적 왜곡의 효과를 더욱 명확히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수행된 연구이다. 그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관계 형성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장면에서 교차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Subrahmanyama et al., 2008),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도 함께 살펴보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애착회피의 경우는 면대면 상호작용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양가적인 특징을 지닌 애착불안의 경우 온라인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면대면 상호작용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오프라인 대인관계 양상을 함께 비교해야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애착불안에서 반응 경험 변화가 애착불안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혹은 온라인의 특징과 상호작용으로 발생한 것인지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애착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아주 가까운 대상’ 전반에 대해 물었다. 본 연구가 종단적으로 시행되었음을 고려할 때 각 측정시기에 연구 참여자들이 떠올렸던 대상들간에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특정 대상과의 관계 형성 과정을 탐색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속 연구에서는 특정 애착대상을 떠올리게 한 뒤 그 대상과의 관계에 집중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개인의 애착성향이 온라인 상호작용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함의를 가진다. 특히 애착불안 성향은 반응성 경험을 매개로 친밀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애착불안에서 반응성을 경험하는 양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상호작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인관계를 보완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애착회피 뿐 아니라 애착불안도 친밀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은 온라인 공간이 면대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대안적 공간이 될 것이라는 기존 연구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 장면이나 교육 장면을 통해 애착불안으로 인한 대인관계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문제가 온라인 세계를 통해 해결 될 수 없음을 주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들이 온라인 대인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가상세계에 과도하게 몰입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상호작용의 긍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안정 애착으로 인한 왜곡을 청소년 스스로 지속적으로 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으며 결국 청소년 개인이 가진 부적응적 내적 작동 모델이 수정될 때 친밀감 형성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미, 남진열 (2001).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8(4), 225-242.
- 김선희, 이은정, 오경자, 박중규 (2001). 애착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인지적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1), 105-119.
- 박지선 (2008). 애착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하얀, 서영석 (2010). 성인애착, 심리적 디스트레스, 대인관계 문제: 피드백에 대한 반응, 정서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575-603.
- 이규미 (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7(2), 383-398.
- 이귀숙, 정연희 (2005). 여자 중학생의 집단따돌림과 심리사회적 적응: 2년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1), 1-17.
- 이정희, 심혜숙 (2007). 성인애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변량 구조분석. *상담학연구*, 8(3), 889-915.
- 이서현, 양은주, 권정혜 (2013). 애착성향이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온/오프라인 자기개방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7(2), 107-125.
- 한종혜 (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 지각 및 자아존중감.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michai-Hamburger, Y., Wainapel, G., & Fox, S. (2002). "On the Internet No One Knows I'm an Introvert": Extroversion, Neuroticism, and Internet Interaction. *Cyberpsychology & Behavior*, 5(2), 125-128.
- Berndt, T. J., & Keefe, K. (1995). Friends' influence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Child development*, 66(5), 1312-1329.

- Bowlby, John. (1976).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Vol. 2): Basic books.
- Buote, V. M., Wood, E., & Pratt, M. (2009). Explor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online and offline friendships: The role of attachment styl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5, 560-567.
- Brennan, K. A., & Bosson, J. K. (1998). Attachment-style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and reactions to feedback from romantic partners: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al bases of self-estee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7), 699-714.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46-76.
- Buhrmester, D. (1990). Intimacy of friendship,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adjustment during preadolescence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4), 1101-1111.
- Carnelley, K. B., & Israel, S., & Brennan, K. A. (2007). The role of attachment in influencing reactions to manipulated feedback from romantic partner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5), 968-986.
- Collins, N. L. (1996)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Implication for explanation, emotion,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4), 810-832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Collins, N. L., & Read, S. J. (1994).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working models. In K. Bartholomew, & D. Daniel (Eds),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pp.53-90). London, England: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Duncan, T. E., Duncan, S. C., & Strycker, L. A. (2013).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 Routledge Academic.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281-291.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016-1024.
- Grotevant, H. D., & Cooper, C. R. (1985). Patterns of inter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development of identity explor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415-428.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Keelan, J. P. R., Dion, K. K., & Dion, K. L. (1998). Attachment style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Test of a self-disclosure explanation.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30(1), 24.
- Laurenceau, J. P., Rivera, L. M., Schaffer, A. R., & Pietromonaco, P. R. (2004). Intimacy as an

- interpersonal process: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In D. Mashek & A. Aron (Eds.), *Handbook of closeness and intimacy* (pp.61-78). Mahwah, NJ: Erlbaum.
- Laurenceau, J. P., Barrett, L. F., & Rovine, M. J. (2005). The interpersonal process model of intimacy in marriage: A daily-diary and multilevel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2), 314.
- Lopez, F. G., & Brennan, K. A. (2000). Dynamic processes underlying adult attachment organization: Toward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e healthy and effective sel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3), 283.
- McKenna, K. Y. A., Green, A. S., & Gleason, M. E. J. (2002). Relationship formation on the Internet: What's the big attrac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58(1), 9-31.
- Mikulincer, M., & Nachshon, O. (1991). Attachment styles and pattern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3), 321.
- Mikulincer, M., Shaver, P. R., & Pereg, D. (2003).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The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attachment-related strategies. *Motivation and emotion*, 27(2), 77-102.
- Prinstein, M. J., Borelli, J. L., Cheah, C. S., Simon, V. A., & Aikins, J. W. (2005). Adolescent girls' interpersonal vulnerability to depressive symptoms: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reassurance-seeking and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4(4), 676.
- Reis, H. T., & Shaver, P. (1988). Intimacy as an interpersonal process. In S. W. Duck (Ed.),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s* (pp.376-389). Chichester, England Wiley.
- Shaver, P. R., & Hazan, C. (1993). Adult romantic attachment: Theory and evidence.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4, 29-70.
- Stackert, R. A., & Bursik, K., (2003). Why am I unsatisfied? Adult attachment style, gendered irrational relationship beliefs, and young adult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8), 1419-1429.
- Subrahmanyam, K., Reich, S. M., Waechter, N., & Espinoza, G. (2008). Online and offline social networks: Use of social networking sites by emerging adul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9(6), 420-433.
- Valkenburg, P. M., & Peter, J. (2007). Preadolescents' and adolescents' online communication and their closeness to friends. *Developmental psychology*, 43(2), 267.
- Ye, J. (2007). Attachment style differences in online relationship involvement: An examination of interaction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0, 605-607.
- Zhang, F. & Hazan, C. (2002).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and person perception process. *Personal Relationships*, 9(2), 225-235
- 원 고 접 수 일 : 2014. 02. 03.
수정원고접수일 : 2014. 04. 17.
최종게재결정일 : 2014. 04. 20.

The mediation effects of responsiveness experience in online spa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tyles and intimacy

Seo Hyeon Lee

Sung Bum Woo

Jung-Hye Kwon

Eunjoo Yang

Korea University

Since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online space, online communication becomes more popular among adolescent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attachment styles would predict changes in responsiveness experience in online space, which, in turn, affect the level of intimacy with close friends. A total of 650 adolescents (males 49.9%, females 50.1%) with an age range between 14 and 17 completed a questionnaire three times in a 6-month interval. Latent growth modeling was used to test a model in which changes in responsiveness experience would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tyles and intimacy. Results supported the linear change model of responsiveness experience. Avoidant attachment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initial level of responsiveness experience. Anxious attachment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initial level of responsiveness experience, but negatively predicted the changes of perceived responsiveness. Finally,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direction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SNS, responsiveness, intimacy,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